



“ The 배려하고 The 존중하면 The 행복한 송정 ”

### ■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 2018년 제 99회 기념식까지는 매년 4월 13일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진행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4월 11일로 변경된다.

임시정부란 정식으로 정부를 수립하기 전 세우는 준비 정부를 말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주권민족으로의 주체성을 알리고 능률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수립되었다. 3·1운동 전후로 국내외 7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그중 상해(상하이, 上海)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3일 수립되었다. 같은 해 9월 11일 각 임시정부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었다.

본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기념일로 제정하려는 논의는 1970년대 후반부터 있었다. 임시정부 수립 60주년인 1979년부터는 서울 효창공원에서 국가보훈처장,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등이 참여한 합동추모제가 열렸다. 이후 1980년대까지 논의가 이어지다 제9차 헌법개정을 거쳐 1989년 제정되었다. 그러나 1919년 4월 11일 국호가 제정되고 임시헌장 반포와 국무원 선임이 이루어졌다는 반론이 제기되자, 보훈처에서는 2017년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의 합리적 확정 방안'이라는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2018년 3월 26일의 학술심포지엄에서도 4월 11일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자, 보훈처에서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부터는 4월 11일로 기념일을 변경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계기로 이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선열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기회를 가져야 하겠습니다.